

사회적 약자에 더 흑독...광주 고용 안전망 ‘구멍’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 경력단절 경험... 절반이 “임신·출산 때문”
자영업자 54% ‘불안정한 수입’에 폐업 위기...직업교육·컨설팅 절실

광주 고용시장의 한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흑독하게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일터를 떠나야 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 자영업자들은 불경기과 준비 부족이라는 이중고 속에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23일 2025 광주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광주의 고용 안전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광주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였다.

이번 조사에서 25~54세 여성 응답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39.6%에 달했다. 여

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결혼이나 육아 등 생애 주기적 사건으로 인해 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48.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결혼’ (20.2%)과 ‘육아’ (16.0%)가 그 뒤를 이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르며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오롯이 여성의 희생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 내 분위기도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다.

경력단절 당시 근무하던 직장의 환경을 묻는 질

문에 ‘출산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7.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 역시 15.1%에 그쳤다. 반면 65.4%의 여성은 아에 관련 제도가 없거나 쓸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육아 병행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 (28.8%),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다’ (23.4%)는 응답이 줄을 이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52.0%)을 꼽았다.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는 사내 문화 정착이 더 시급하다는 절박한 호소다.

임금 근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창업을 택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들의 삶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

비임금근로자 10명 중 7명(68.3%)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불안정한 수입’을 꼽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그만 두려는 이유로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5%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조사 때보다 무려 19.3%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 문을 닫는 ‘비자발적 퇴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자영업 희망자들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자금 마련’ (34.9%)이었다. 반면 상권 분석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경영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는 결국 높은 폐업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자금 융자 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예비 창업 단계부터의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구직난과 구인난의 간극을 메워줄 직업교육훈련

마저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도 확인됐다.

최근 3년 이내에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93.1%에 달했다. 시민 대다수가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훈련 자체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로 절반 이상(50.7%)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했고, ‘교육을 받아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8.1%)라는 불신도 상당했다.

훈련 경험자들조차 불만족 이유로 ‘교육받은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별로 없어서’ (2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산업 현장에는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인력을 원하는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23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주민센터 지역사 회보장협의회 회원들이 산티복장을 하고 용주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성탄선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시민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자 1822명에 1억3000여만원

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시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4만4269가구와 운전자 1822명에게 탄소중립포인트로 총 8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2025년 상반기에 전기·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에너지 부문 감축 가구에 7억4000여만원, 자동차 부문 참여자에게 1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량과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

스 감축 실천 제도다.

현재 광주시의 에너지 부문 가입자는 37만4000여 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 수 대비 가입률 56%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19만657가구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해 온실가스 3만3553t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69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올해 참여 차량 3143대 가운데 1822대가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 성공해 온실가스 667t을 감축했다.

소나무 7만여 그루 식재 효과와 동일하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자동차 부문 참여 대수를 5000대 이상으로 확대 모집할 방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에너지 부문의 경우 전용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 부문은 매년 2~4월 중 별도 모집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탄소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인증 전국 1위

5664ha 전년비 240% ↑ ...전국 33% 차지

전남도가 23일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실적은 전국 최대인 5664ha(284건)로, 전국 인증면적 1만 8935ha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인증면적 1660ha보다 240% 증가한 결과다.

저탄소 인증규모는 전남 5664ha, 전북 4560ha, 경북 3265ha, 충북 1996ha 순이었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

화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경영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높다.

신규 인증 신청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경으로는 전국 인증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과 전국 최초로 인증 확대 계획 수립·추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탄절·연말 안전 지킨다”...광주소방, 비상 근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들 뜬 분위기 속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23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성탄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이어지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 기간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918명의 가용 인력과 소방차량 등 장비 282대가 출동원태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소방당국은 우선 관서장 중심의 지휘 선상 대기 원칙을 확립하고 전 직원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유사시 초기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쪽방촌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횡수를 늘리고,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31일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중 행사가 열리는 동구 5·18민주광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와 급급차를 현장에 전진 배치한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료 공백과 불편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고영국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겨울철은 잦은 난방기기 사용과 각종 모임으로 화재 등 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민들없는 현장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료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